

시론



김영식 GITC국제대학교 부총장

내일, 우리가 진짜 웃어야 하는 이유

벌써 초여름 6월이다. 요즘 전남·광주 시·도민들의 혈압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을 것 같다. 논란 뜨겁게 터지는 글로벌 전쟁 뉴스에, 통합에 따른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갈등, 작년 무안 공항 사고의 잔상까지 남아 가슴이 먹먹하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최근 S백스의 '탱크데이' 사건은 민주시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 이제 바로 내일(6월3일)은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초대 특별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보니, 지난 주말부터 어제오늘까지 거리마다 쏟아지는 막판 소음과 문자 폭탄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다.

4년마다 찾아오는 흥역 같은 이 지독한 선거 스트레스를 마주할 때마다 과거 '코미디의 황제' 고(故) 이주일 선생이 남긴 명언이 다시금 떠오른다. 그는 생전에 14대 국회의원으로 직접 정치판에 발을 들였다가 빠져진 환멸을 느끼고 정계를 떠나며 이렇게 일갈했다. "4년 동안 여의도에서 코미디 공부 참 많이 하고 떠났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정치판이 내가 하던 코미디보다 훨씬 더 코믹합니다." 멀리서 보면 웃기는 코미디 같지만, 가까이

서 보면 온갖 거짓과 영혼 없는 쇼가 판치는 여의도 블랙코미디에 황제마저 백기를 든 것이다.

그가 말한 '코미디 같은 정치'의 본질은 최근 전남·광주 시·도민들의 속을 뒤집어놓은 S백스의 잘못된 마케팅 사태와 소름 끼치게 닮아있다. 광주의 송고한 역사이자 아픈 5·18을 고작 기업의 이미지 세탁과 매출 올리기 용 '상업 굿즈' 정도로 이용하려다 들뜬이 났으니 시·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웃긴 건 사태가 커지자 S백스 최고경영자(CEO)가 내놓은 사과문이다. 주가 떨어지고 불매운동이 심해지니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는데, 알맹이를 보니 "실무진의 착오? AI 때문?", "대형사와의 소통 오류"라며 꼬리를 자른다. 우리 시·도민 눈에는 그 사과가 뜨거운 커피 위에 대충 얹어놓은 휘핑크림처럼 보일 뿐이다. 사진 찍을 땀 화려하지만 돌아서면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질 '영혼 없는 면파용 쇼'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혈압약을 찾는 대신, 광주답게 나눔과 상생의 정신이 담긴 '주먹밥 유머'로 저들의 오만함을 비웃어줘야 한다. 누군가 알미운 짓을 하면 도끼를 뜨는 대신, 주먹박처럼 소박하지만 단단한 위트를 담아 너스레 웃으며 이렇게 받아쳐 보자. "아따, 나는 요새 걸만 번지르르한 미국 별다방 대신, 내 튼튼한 두 다리로 타는 최신형 고급 'BMW' 타고 우리 동네 다방 가서 속이 뽕 풀리는 보성 녹차 한잔 해야겠네!" 실제로 70대 어르신인 "면허 반납하고 새 BMW(버스·지하철·걷기) 뽑았다"라며 유머

를 던졌을 때 좌중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알뜰한 상업주의나 스트레스는 분노로 맞받아 치면 내 손해고, 이렇게 유쾌한 위트로 씹어 삼켜버릴 때 힘을 잃고 특 떨어지는 법이다.

특히 6월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됐다. 우리가 바로 내일 이토록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총칼 앞에 온몸을 던져 이 땅을 지켜낸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국립 5·18 묘역을 찾아가 묘비를 닦으며 눈물 흘리고 대단한 애국자인 척 언뜻 그럴싸한 마케팅을 펼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여의도 배우로 돌변할 'S백스형 후보'들을 골라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나라의 모습은 우리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이웃과 마주 앉아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나누고, 호탕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뽑아야 할 진짜 리더는 목에 힘주는 가짜 영기자가 아니다. 갈등과 상처 앞에서도 "자, 우리 시원하게 한번 웃고, 같이 땀 흘리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합시다"라며 딱 막힌 판을 진정성과 유머로 풀 줄 아는 상생의 리더다. 이변에 당선되는 분들은 시·도민의 이해를 진짜로 소중히 여기고, 운동장의 팽방울을 사랑할 줄 아는 진짜 살림꾼이 되시길 바란다.

하하하! 내일 세상의 모든 알뜰한 마케팅과 정치 코미디를 유쾌한 위트로 날려버릴 시·도민의 건강한 웃음과 위대한 선택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社說

노후 고가시설 안전성 일깨운 서울 서소문 붕괴사고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가 완료되면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붕괴 사고로 하루 철로의 통행이 통제됐다. 호남선의 경우도 목포역이나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 서울이나 용산 등으로 상·하행선 KTX가 일부 축소돼 평상시 70% 수준의 운행률을 보였다.

또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까지 막혀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 대체 탑승을 위해 평소와 달리 임시 정차하면서 연착이 속출했다. 무궁화호는 서울 방면으로 가지 못하고 서대전에 멈춰섰다. 코레일 측은 "불가피한 감축에도 믿고 기다려 준 국민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특별시와 공사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소장급 직원을 포함해 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전에 위험 징후가 컸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안전불감증이 지적되고 있다.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과정에서 약 29cm 내려앉은 단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인지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붕괴 1분 전까지 열차 차단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KTX와 일반 열차가 수시로 오가는 길목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 엄중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유사 시설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86년 준공된 양복 4차선 도로로 정밀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철거가 진행돼왔다.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안전등급은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5단계로 나뉜다.

도시 경관 개선 등의 이유로 하나둘 사라지고 있으나 고가·교량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평소 출퇴근 등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자재에 결함 결함이 나타난 C등급까지도 전체 구조물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선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매우 특별했던' 여수 해상교량 기부런 프로그램

여수시 남도 일원에서 지난 주말 열린 'Run for Islands(기부런)'에 전국에서 1천여명이 참여했다. 상당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러닝 크루로,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와 입소문을 기반으로 각지에서 모였다. 전남도는 섬 지역 기부와 숙박·관광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도-조발도를 잇는 10km 해상교량을 달리면서 진행되는 공익형 프로그램이다. 참가비의 50%를 남도와 개도·금오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관광과 나눔을 결합한 행사로 9월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까지 제공, 주목을 받았다. 드넓은 바다와 섬을 바라보며 뛰는 것 만으로도 너무 색다른 경험 이 아닌가. 아름다운 풍경 또한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이 됐을 것이다. 해서 가족·지인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울러 숙박시설 이용과 주요 명소 방문이 늘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수 기부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천만 관광객도시 여수와 산재한 천혜의 섬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특화 상품으로 확대해 다시 찾고 오래 머물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여수 기부런'을 검색하거나 공식 온라인 채널(runforislands.com)을 통해 신청순으로 신청을 접수했다. 도는 SNS 콘텐츠와 커뮤니티,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이어갔다. 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콘텐츠를 더해 소개해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참여 규모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교통 통제, 의료 지원 등 현장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민들은 교통 통제에 협조하는 등 성공 개최에 한몫했다.

매우 특별했다. 섬이 단순히 방문하는 곳에 그쳐선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 매력을 느끼고 돌아갔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섬의 무한 가치는 충분히 검증됐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준비돼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등 지속가능한 이벤트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

직불금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다

2026년 우리나라 농업 예산은 2025년 3029억 원이다. 직불금 총액은 3조1천600억 원으로 농업 예산의 15.7%를 차지한다.

이 중 공익직불금은 2조4천535억 원으로 직불금 총액의 77.6%를 차지하고 전라직물직불, FTA 피해보전직불 등 선택형·별도 직불금은 7천655억 원으로 22.4%를 차지한다.

2025년 기준 농가당 공익직불금 평균 지급액은 244만9천 원이다. 선택형·별도 직불금을 모두 포함하면 309만4천 원에 달한다. 이는 직불금이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농가소득을 지탱하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4년 농가소득은 평균 5천592만7천 원으로 전년(5천82만8천 원) 대비 0.5% 감소했지만,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안정적 소득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직불금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1997년 규모화 촉진을 목표로 경영 이양직불제가 시작됐고 2001년에는 논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며 쌀 보조의 기초가 마련됐다. 2005년에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쌀 가격 하락에도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쌀 중심 편중과 품목 간 지원 불균형, 대농·소농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0년 농업·농촌 공익직불제가 도입됐다.

2025년에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 단가가 인상됐다. 진흥지역 논(菴) 1구간(0.1-2ha이하)은 ha당 205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비진흥 지역 밭(田) 3구간(6ha 초과)은 100만원에서 136만원으로 인상됐다. 2005년 7천900억 원에 불과했던 직불금 예산은 2025년 3조 원을 넘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익 중심 직불금의 강화와 면적 단가 인상으로 농가 지원 효과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직불금은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전소득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과 농업의 소득을 포함한 농가 전체 소득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4년 농가소득 구성은 농업소득 18.9%, 농업의 소득 39.8%, 이전소득 36.0% 등이며 이전소득의 96.6%는 공적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어 정책 지원이 농가 생활 안정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 제의 요건인 '농업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천700만원에서 4천3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졌다.

2026년도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는 5월29일 마감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등록하려는 농지 중 면적 합산이 가장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한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농가소득을 지탱하는 안전망이다. 농가 모두가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현장칼럼



박태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광주전남협회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재인증, 시민과민간이 함께할 때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하며 3회 연속 공식 등재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보유한 자연·문화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세계가 인정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이 공동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질 보전과 교육, 관광 활성화에 힘써온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유네스코 인증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지역사회 구성

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실천에 있다.

실제로 세계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인증사업은 주민 참여와 민간 교육, 시민 의식 확산 여부가 재인증 과정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유네스코 브랜드는 행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내는 공공 자산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민간 영역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국유네스코 협회연맹 광주·전남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유네스코 정신을 공유하는 민간 협력기관으로서 지역민 대상 교육과 홍보, 청소년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캠페인, 국제 교류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 제도와 기반을 구축한다면, 민간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 유네스코 가치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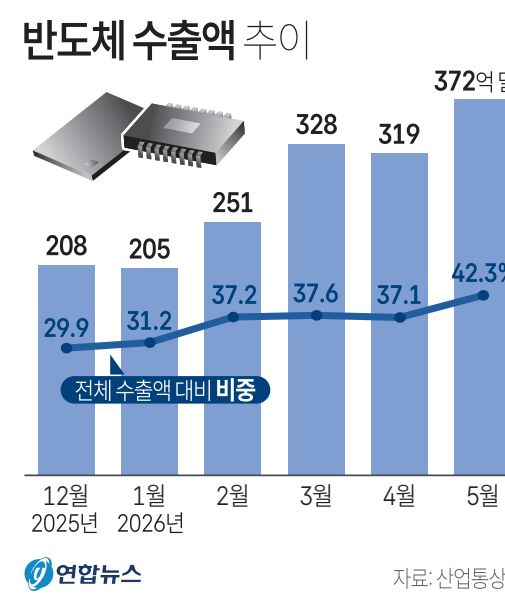
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수억 년의 지질 역사와 지역의 문화·생태·인권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질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 탐방과 해설사 양성, 탄소중립 연계 프로그램,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국제 교류 콘텐츠 개발 역시 시급한 과제다.

유네스코 재인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행정과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단순한 지역 명소를 넘어 세계 속 지속가능한 교육·문화·환경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숨쉬는 유네스코 정신의 실천이다.

그래픽 뉴스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 데에는 어김없이 반도체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일평균 수출도 42억8천만 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은 371억6천만 달러로 18.4% 급증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또한 번 새로 썼다. 반도체는 14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3개월 연속 수출액 300억 달러 고지를 밟은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인 42.3%까지 늘렸다. 반도체 호황은 미국·중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해 메모리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D램 300.8%, 낸드 206.8%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활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濼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구로로 15,000원 1부 800원